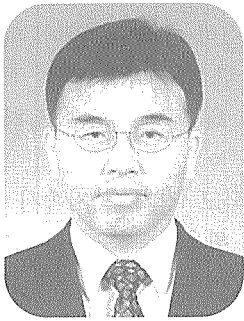


성장엔진 파워를 높이자



은 기 운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

우 리나라가 앞으로 무엇에 의존해서 성장잠재력을 유지해나가야 할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최근들어 부쩍 늘고 있는 것 같다. 밖 으로는 세계경기 위축과 통상압력으로 수출의 길이 험란해지고 있고, 안으로는 경쟁심화로 기업들의 존립기반이 좁아지고 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가격인하 경쟁 때문에 '속빈강정식' 장사를 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체 3사중 1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는 형편 에 있다는 사실은 한국기업의 채산성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심지어 하이닉스반도체처럼 생산을 하면 할수록 손실이 늘 어나는 업체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보다 해외를 생산기지로 선호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채산성확보와 통상압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국내에 서는 투자위축 심화와 산업공동화 염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뭘 해서 먹고 살을까 하는 걱정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데 있다.

현재의 성장세 둔화는 세계경기 침체와 경기순환 등의 요인이 겹쳐 나타나는 측면이 꽤 강하다. 그러나 일정 기간 후 우리 경제가 회복국 면에 접어든다 해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5% 이상의 성장이 쉽지 않 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고 보면 성장잠재력 약화는 그냥 둘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경제가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가 모두 견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업의 생산, 즉 공급이 위축되거나 민간수요가 침체되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물론 국가간 경제적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급과 수요 가 어느 한 국가내의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공급의 한 축을 이루고 수출도 수요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간 상품과 서비스 이동에 제약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는 국내공급과 수요가 경제활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임에 틀림없다.

결국 한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공급과 수요를 모두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늘려야 하며 이와 동시에 이들의 가격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생산요소는 풍부하지만 이들 가격이 높을 경우 투자가 원활히 일어날 수 없다.

우리의 경우 현재 금리는 많이 떨어져 금융비용 면에서는 외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편이지만 인건비는 후발국보다 높아 불리하다. 이 때문에 중국 등으로의 기업 탈출이 늘고 있다.

한편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 생산요소로서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기술경쟁력이 높으면 노동과 자본에서 다소 불리하더라도 생산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다. 노동 자본 기술 등의 여건이 양호하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돼 있지 않으면 공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이 점과 관련 세계경제 포럼(WEF)이 최근 한국은 기술과 거시환경 면에서는 세계 상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법과 제도가 낙후돼 성장잠재력이 뒤져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의미할만하다.

이런 조건들의 충족과 더불어 산업비전 제시도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어느 산업이 유망한지 그림이 보여야 기업들이 왕성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최근 정부가 '2010년 산업발전 비전'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볼 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가격 안정과 기술개발, 법·제도 정비, 비전제시 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공급은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 과거 대공황 때나 현재의 세계경기 침체는 수요가 공급에 크게 못미쳐 발생한 것이다. 이는 현재의 경기침체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수요회복이 중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국가마다 경기부양책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금리인하 등 단기적 경기부양책보다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불확실성 제거와 소득불균등 해소 등이 중요하다.

대외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요흡수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아시아, 특히 중국 시장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상품의 가장 큰 수요흡수자 역할은 미국이 해 왔다. 그러나 테러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변화 때문에 미국에 더 이상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의 공백을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이 대체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서부대개발 등의 재료로 인해 우리에게 무한한 시장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중국의 중요성에 비취볼 때 우리의 중국 활용 준비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전문가 활용이나 제2외국어 교육, 정부차원의 협력장치 구축 등에서 보완하거나 추진돼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다.